

제목: "우리 함께 가십시다"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11절

힘한 세상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셨고 형제와 자매를 주셨습니다. 함께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합니까?

1. 뜨겁게 _____하며 가야 합니다.
2. 기쁨으로 서로를 _____합니다.
3. 은혜 받은 자답게 _____해야 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이 _____해야 합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니카라과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운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김종현/김유경 선교사	선교사 파송 및 교회를 떠난 청년 사역(한국)
제이넵/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현지인으로서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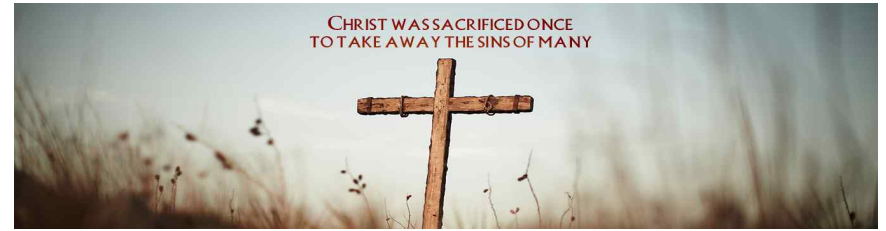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4장 8-11 설교자
 Scripture Reading 1 Peter 4: 8-11 신약 381 페이지 Presider
- 말씀 "우리 함께 가십시다"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어린이들이 없어지고 있다)

지난 주 여러 곳에서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인구 감소의 문제다. 특별히 한국과 일본은 그 중 가장 앞서가고 있었다. 결혼도 늦지만 자녀를 갖고자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한 마을에는 7년 전 25년 만에 남자 아이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지금 7살이 되었는데 어린이로서는 그 아이 하나란다. 그래서 노인들이 귀여워하지만 앞으로 미래가 많이 어둡다고 한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벌써 되돌릴 수 없는 재난이 되었다고 한다. 40년 뒤에 한국은 어떠한 모습이고 일본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런데 실은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민족은 많아지지만 미국에 주류를 이룬 백인의 인구 문제 또한 많이 심각하다. 발란스가 바뀌는 것이다.

교회는 어떠한가? 실은 15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는 교육부가 활발하고 어린이들이 있었지만 주위에 교회들에는 어린이들이 없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린이들이 없고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가 더 자연스러워졌다. 너무나 안타깝다. 자녀를 낳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없었던 우리의 지난 40년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생각은 했지만 앞에 있는 일들에 휘둘러 미래를 계획하지 못한 것이다. 있던 다음세대들도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교회에서 쫓아 내보내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몇 주 전 있었던 미국 중부의 한 기독교 학교의 부흥의 소식이 생각난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그리고 더 간절히 다음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 안에는 다음 세대와의 화해가 꼭 필요하다. 그 세대는 1세대들을 통하여 많은 아픔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전 세대에 상처를 받지 않은 다음 세대는 없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만날 기회조차도 없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괴롭다. 우리들의 교회가 20년을 볼 수 없는 교회라면, 우리 세대로 끝이 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은 그런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일어서서 열심을 내서 방법을 찾으라고 하신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찾아가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야 분명하고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라고 하신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일에 함께 안타까워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 교회의 열심히 인하여 다음 세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일을 우리 세대에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주여! 죄송합니다. 부흥케 하소서.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키 현지인 목회자들의 도움이 잘 연결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임철현, 임운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김종현, 김유경 선교사: 선교 동원사역 및 한국 청년사역 (교회를 떠난) 제이넵, 젠기즈 사역자: 터키키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4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씩 가지고 가서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별세

박혜미 자매님 부친 3월 17일 씨애들

6. 2/3월 행사

사순절 시작	2월 22일(수)		
목자훈련 (2)	오늘	친교 후	본당
목장모임	3월 26일(주)	약속한 시간	모임 장소
종려주일	4월 2일(주)	성찬식	
고난주간	4월 2일 - 7일(금)		
부활주일	4월 9일(주)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